

# 공간디자이너 도시경쟁력의 패러다임이다!

## 한마음으로 결집된 경상북도 건축인

Space design is the paradigm of City's Competitiveness.

이재춘 |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

경상북도 건축인들이 경북을 지역의 역사성과 미래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산·관·학 건축단체 구성원 모두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2일 경상북도건축사회·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경상북도 건축담당 공무원 등 산·관·학을 총망라한 건축관계인이 한자리에 모인 「2012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 한마당」은 2,000여 명의 건축인들이 침체된 건설경기 타파를 위해 건축설계·시공·감리와 건축분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건축행정의 가장 기본 소임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민간주택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에 힘쓴 결과 경상북도의 주택건설 실적이 작년보다 50% 증가하고 미분양주택은 작년보다 56% 감소하는 등 경북의 주택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의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노력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대책 추진, 장기간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수요회복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도농이 공생하는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성장위주의 급속한 개발과 경제성장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조성된 도시·건축물·경관 등을 디자인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2012년을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으로 선포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도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 총 12개 시·군 18개 지역에 1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 7개 지역은 중앙공모사업을 유치해 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 사업지구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146%정도 증가하여 명실 공히 디자인사업 원년임을 실감케 한다. 특히 도는 올해 7개 군지역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45억 원을 투입, 도시 중심이던 공공디자인 사업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도시는 물론 농어촌지역도 수준 높은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시설에까지 파급효과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가지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설치된 상가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7개 지역에 국비 1억3천100만 원, 도비 25억4천만 원, 시군비 26억3천100만 원 등 총 53억200만 원을 투자하며, 농촌지역의 복합희망공간을 창조하는 희망만들기사업을 3개 지구에 총 27억5천만 원을 투자한다.

경상북도가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 있다. 국내에서 준비하는 글로벌 전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태동기인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사업을 준비하는 국내 전초기지로 사용될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건립사업이며,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대 2015년 말 완공예정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외로 직접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개발추진사업을 해외로

이재춘 국장은 경북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에서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 석사를 취득, 경상북도청에서 문화재팀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정책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축디자인과장으로 재임하다가 현재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근정포장과 건교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는 2차원 평면개념으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는 3차원 입체적  
개념과 도시의 시대상과 비전을 담은 4차원의  
공간감을 담은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확장하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추진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주택  
건설사업 기술지원과 지역 업체 진출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 등 8개과 20명의 직원과 대구대,  
GIS전문가 등 산·관·학 협력체계를 갖춘 5  
개 팀 26명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  
추진단(이하 UB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  
발대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UB추진  
단은 7월 16일부터 1개월간 울란바타르시 공  
무원을 대상으로 대구대에서 GIS이론과 실기  
교육 등 도시개발 분야 연수를 실시한다.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프로그램을 접  
목시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  
하는 것도 UB추진단의 주요임무 중 하나다. 경  
상북도가 몽골에서 제공받은 20ha 규모의 부  
지에 '경북드림파크'를 조성하여 경북의 문화와  
기술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방침이며 몽골 진  
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및 기관단체와 함께  
공원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홍보관, 상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은 공간디자인의 미  
래에 관하여 쉽 없이 달려오고 많은 고민과 노  
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의 도시는 2차원  
평면개념으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는 3차원  
입체적 개념과 도시의 시대상과 비전을 담은  
4차원의 공간감을 담은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  
시켜야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  
으로 경북의 도시공간, 기반시설, 주거공간을  
아우르는 차원 높은 행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  
과 지역의 발전, 균형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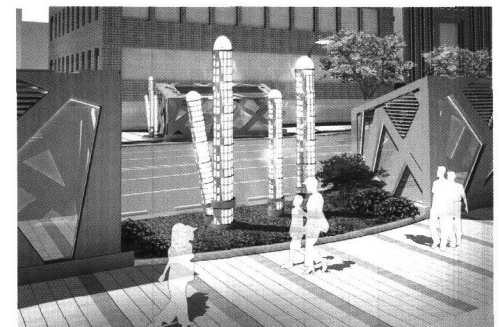
경상북도가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 있다.  
국내에서 준비하는 글로벌전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태동이 된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사업을 준비하는  
국내 전초기지로 사용될  
'새마을운동테마공원'건립으로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대  
201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외로 직접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개발추진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추진사업'이다.



2012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 한마당



대한건축사협회와 경상북도, 주택건설협회의  
협회 사옥 「도청신도시」 이전 MOU체결



구미 공단특화거리 조성사업 2구간 투시도